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04	07. 11	07. 18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읽기 - 역사서(수~에) 1일 5장 읽기 7월 22일(60일)까지
2. 말씀 나눔 - 7월 1일부터 신청하신 교우들로 새롭게 진행됩니다(전교인 대상)
3. 6월 생일 - 장용환 형제(7일) 김영희 권사(13일)
4.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종업 연주	윤성봉 형제(29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78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왕상 22 : 37 -40(구p557)..... 김영희 시무권사
(1.Könige 22:37~40)
- 설 교 Predigt 절대 악에 대한 심판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80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작은 일에 헌신하라

Michael Costa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연습 시키던 중 갑자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장엄한 울겔 소리와 천등과 같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나 하나쯤 소리를 내지 않아도 표가 안 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피콜로 연주자가 가만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침묵을 예리하게 알아차린 지휘자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피콜로 어디 있어요, 당신이 있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산다오. 자부심을 가지시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오케스트라가 빛이 난단 말이요.

교회 안에는 작은 일에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가대에서 섬기시는 성가대원들, 찬양팀에서 섬기시는 분들, 악보를 준비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는 목자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들,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분들, 주보를 접고 꽃꽂이로 헌신하고, 음향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 비디오를 촬영하고 예배를 위해 ppt를 만들어 전송하는 분들,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 섬기는 분들,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 어찌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소외되고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의 일을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작은 일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기쁨의 영성 / 강준민 목사
(미국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자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봉헌하는 사람들이었다. - 무명의 성도 -